

〈要 約〉

(1) '94 南北經協 現況

- 物資交易은 금액 기준으로 2억 달러 수준을 약간 웃돌은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委託加工 交易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 「10·18 北美會談」 타결 이후 정부의 「11·8 南北經協 活性化 措置」는 북핵 문제로 침체되었던 南北交易에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 컨트리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企業의 對北投資 의욕이 강했음.

(2) '95 南北經協 展望

○ 概觀

- (南北交易) 당분간 남북경협은 본궤도에는 오르지 않아 현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2억 5천만 내지 3억 달러의 南北交易이 예상됨.
- (對北 委託加工業) 短期的으로 북한의 대외 개방 부담이 적은 委託加工業은 활성화되어 5천만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對北 直接 投資) 對北 直接投資는 南北當局간의 협의 및 대화를 통한 미비점 개선여하에 따라 開始될 전망임.
- (政府의 對北經協 政策) 實用主義에 입각, 委託加工 活性化등 成事可能한 경협을 우선으로 단계적 南北經協 擴大 政策 추진.
- (企業의 對北韓 進出) 기업들의 訪北을 통한 對北投資 調查 作業 및 委託加工 交易이 활발할 것임.

○ 關聯 部門別 展望

- (北韓의 김정일 체제) 北韓經濟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體制固守型 對外 開放 및 制限的 經濟交流·協力 政策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도모하려 할 것임.
- (核 透視性 및 輕水爐 建設) 핵투명성에 대한 북한의 실천성 여부는 불투명하나 정부는 경수로 건설 지원을 연계한 남북경협을 구상중에 있음.
- (南北對話) 당분간 觀望 姿勢로 일관될 것이나 몇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년 하반기 이후 實務級 對話 雰圍氣가 조성 가능.
- (周邊國家의 對韓半島 政策)
 - (北美 關係) 북핵 합의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간 교역이 확대될 것임.
 - (北日 關係) 장기적으로 北日間的 關係 개선 및 정상화로 진행됨.
 - (南北韓과 中國 關係) 중국은 북한과의 血盟關係와 남한과의 善隣友好關係를 당분간 동시적으로 추구할 것임.
 - (外國企業의 對北韓 交易) 北美關係 및 南北經協의 진전에 따라 外國企業의 對北韓 進出은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I. '94 南北經協 現況

(1) 南北交易 現況

○ 物資交易은 금액 기준으로 2억 달러 수준을 약간 웃돌은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委託加工 交易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搬出入 承認現況) '94년 南北間 物資交易 搬出入 承認 實績은 2억 2,791만 달러로서, '93년의 1억 9,879만 달러에 비해 14.6% 增加하였음.

- 상반기에는 북핵문제로 남북교역이 감소되었는 바, 하반기 이후 위탁가공 교역이 급증하고 制限 承認 品目에 대한 교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南北交易은 月平均 약 2,000만 달러 규모로 반전되었음.

- 대부분 반입위주이나 '94년도의 반출 증가율이 현저히 상승한 것은 작년 12월 중 북미 핵협상 타결에 따른 對北 대체 에너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4백 5십만 달러에 상응하는 중유 1차분 5만톤을 搬出하였기 때문임.

·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반입 비중('90년 81.2% → '93년 94.8%)이 1994년의 경우 89.0%로 다소나마 감퇴된 것은 위탁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의 반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임.

· 북한으로의 搬出이 극히 부진한 이유는 북한 당국이 남한상품의 북한 유입을 꺼려할 뿐더러, 북한이 외화부족으로 인하여 남한제품과의 물물교환 형식보다는 남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현금결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임.

- 남북한의 물자교류는 주로 간접교역 방식임.

· '91년 - '94년의 남북교역에서 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임.

- (通關 現況) '94년 1월부터 11월까지 通關 實績은 864件 108개 品目 1억 8,020만 달러로서 前年 同期間 629件 92개 品目 1억 7,790만 달러에 비해 1.3% 增加하였음.

- (品目別 搬出入 承認 實績) 搬入物品의 비율은 鐵鋼·金屬類가 64.3%, 농림 수산물이 16.9%, 석유류가 11.2%의 순서임. 반출품목의 비율은 석유류가 54.1%, 화학제품이 23.8%, 생필품이 16.6%의 순서임.
- (委託加工 交易 現況) 위탁가공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94년도 위탁가공교역의 총 승인실적은 완제품 반입승인 기준으로 107건 1,637만 달러로서 '93년도의 44건 438만 달러에 비해 3.7배 증가하였음.
 - '94년도 業體別 委託加工 交易 實績은 金額 基準으로 럭키금성상사가 67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물산 511만 달러, 대우 267만 달러 順임.
- (交流 現況) 南北 往來實績은 예년에 비해 극히低調하지만, 북한 住民接觸 申請 및 承認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11·8 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이후 경제 분야에서의 북한 住民 接觸 申請이急増함.

<표> 연도별 반출입 승인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1991	328	92	165,996	40	48	26,176	368	140	192,172
1992	365	93	200,685	42	34	12,818	407	127	213,503
1993	478	87	188,528	76	39	10,262	554	126	198,790
1994	599	92	202,952	162	50	24,959	761	142	227,911

자료: 통일원

<표> 연도별 위탁가공 교역 승인 현황(단위: 천 달러)

연도	건수	반입	반출	합계
1991	1	23	13	36
1992	10	556	414	970
1993	44	4,385	3,611	7,996
1994	90	14,856	10,505	25,361

자료: 통일원

(2) 「11·8 南北經協 活性化 措置」

- (焦點) 「11·8 南北經協 活性化 措置」로 경색되었던 남북경협에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 (背景) 北核問題로 단절되었던 南北關係를 北美會談 타결 이후 經協으로 정부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政府의 南北經協 活性化 措置 주요 내용 (1994년 11월 8일)

- 企業人 訪北 등 남북 경제인사 상호 방문 허용.
- 국내 기업의 북한 사무소 설치 허용.
- '示範事業'은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事案別로 허용.
- 委託加工 活性化 추진.
- (背景) 지난 10월 北美會談의 타결이후 '核優先 對北政策'을 수정, 북핵문제로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경협으로 정부가 주도·개선함.
- 對北 輕水爐 支援 및 북한과 관련국간 관계 개선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남북경협을 검토, 진전시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았음.

(3) 企業의 對北 進出

- (現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企業의 對北投資 의욕이 왕성함.

- 우리 기업이 南北經協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
 - 남한의 기술, 자본, 북한의 노동력의 결합으로 경쟁력 제고.
 -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및 北方 進出의 교두보를 확보함.
 - 남북경협 분야에서 타기업에 뒤지고 싶지 않은 기업간 경쟁의식.
 - 북쪽 고향에 투자하겠다는 의식 발로.
- 그러나 남북한 교역과 투자관련 북한법·제도등의 미비로 무분별한 대북 진출에 대한 신중론도 상존함.

II. 南北經協 決定 要因別 現況과 展望

(1) 北韓의 김정일 체제

- (現況) 體制를 위협할 정도로 침체된 經濟狀態下에서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 승계가 지연되고 있음.
- (爭點) 北韓의 對南 經協 戰略에 있어서의 二重性
- (展望) 體制 固守型 對外 開放 및 制限的 經濟交流·協力 政策

1) 김정일 체제의 지속성 여부

- 김정일체제의 불투명성: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

가설(현실성, %)	특 성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70%)	· TV를 통한 김정일의 건강과시에도 불구하고, 건강이상 의혹이 증폭(腎不全症, 당뇨, 간경변 등)
3年喪論(20%)	· 유교적 색채, 北韓의 당공식적 이유. · 遺訓통치를 통한 김정일에게의 충성심 강조. · 그러나 장기간 권력의 공백상태를 초래로 현실성이 약함.
권력갈등설(10%)	· 北韓 軍部가 北韓 권력내에서 중대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는 설도 있음(미국 레이니 대사)
기타	정책대안 부재론, '동극' 선물 준비론

-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그의 건강이 회복되는 정도에 맞게 군부를 중심으로 아래로 부터 추대 분위기를 조성,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

· 금년 4-5월(4월말 인민군 창건 기념일 및 5월 제9기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이 전면 교체) 또는 10월(북한 노동당 창당 50주년)에 김정일이 국가주석직과 당 총비서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있음.

2) 北韓의 對內外 開放 政策: 體制固守型 對外 開放

- (對內 政治) 인민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강화.
- (對外 政治) 親美 反韓 政策 (聯美封南)
 - 급격한 변화는 회피하되, 북미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및 국교 정상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임.
- (北韓의 對南韓 政策) 北韓의 對南 經協戰略에 있어서의 二重性
 - 「11·8 南北經協 活性化 措置」 이후 북한은 정부와의 經協 및 對話 再開는 거부하였으나, 企業人들과의 경험은 지속하는 二重性을 보이고 있음.
 - (배경) 北韓經濟 回生을 위한 開放과 이에 따른 體制瓦解에의 염려.

3) 北韓의 對外 經濟 政策: 制限的 經濟 交流·協力 政策

- 實用主義的 經濟政策 노선
 - 무역제일주의, 합영사업 및 차관 등을 통한 자본과 기술도입, 과학기술개발 노력을 꺾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도 체제개혁은 수행하지 않는 제한적인 경제 개방을 추진.
- 부분적인 經濟特區 政策
 - 체제유지 부담으로 당분간 타지역과 철저히 차단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개방.

4) 北韓의 經濟狀況

- 지속적 沈滯로 최근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시현.

<표>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	1991	1992	1993
7.8	7.2	2.6	-3.7	-5.2	-7.6	-4.3

자료: 통일원, 한국은행

- 體制 存立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食糧 不足 현상.
 - '91년의 30만톤에서 '93년에는 120여만톤으로 식량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됨.

- 취약한 에너지 분야
 - 북한 에너지 공급의 70%를 차지하는 석탄생산이 계속 감소하고, 구소련으로부터 연 100만톤 가까이 수입되던 원유가 최근들어 중단된 상태임.
- 硬貨 不足 및 外債 增大
 - 慢性的 貿易收支 赤字 및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원조와 조총련계 송금의 단절.
 - 1993년 현재 북한의 외채총액은 약 103.2억 달러, 북한의 총외채 대 GNP 비율은 50%, 총외채에 대한 수출비율은 1000%를 초과하여 대외신용도는 세계 170개국 중 167위로 최하위권에 속함.

<표> 북한의 對外貿易 추이 (단위: 억달러)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무역의존도
1988	20.3	32.1	-11.8	25.4
1990	12.6	18.2	-5.6	13.3
1992	9.2	15.5	-6.4	11.7
1993	9.4	15.4	-6.0	12.1

자료: 통일원, KOTRA

(2) 核 透 明 性 및 輕 水 爐 建 設

- (現況) 北美會談 타결 이후 KEDO를 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 진행.
- (爭點) 향후 핵투명성에 대한 북한의 실천성 여부
- (展望) 불투명하나 정부는 경수로 건설 지원을 연계한 남북경협을 구상중에 있음.

- 輕水爐 建設 支援은 中長期的으로 남북한 관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음.
- 경수로 건설의 성공적 지원은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 및 통일과정의 원활화를 촉진시킴.

- '95년도 輕水爐 지원 일정

내 용	시 기
미, 대북 무역규제 완화	1월 21일 이전
사용핵 연료봉 처리 협상	1월 17일 - 21일
대북한 지원 중유 전달	1월 21일
KEDO-북 경수로 공급 협상 개시	1월말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회의	1월 31일 - 2월 4일
KEDO 발족	2월말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4월 21일 이전
KEDO 상업계약 체결	12월

· 북미 기본 합의문 이행체제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3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비용 분담문제를 놓고 관련국간 갈등도 예상됨.

- 정부는 경수로 건설 지원과 남북 관계 개선을 연계해 발전시켜나가는 「남북 관계 개선 중장기 전략」을 마련 중임.

<표> 남북 관계 개선 중장기 전략안

구 분	경수로 지원 일정	단계별 목표
1단계	'95년 4월까지 경수로 계약 체결	남북 대화 재개
2단계	'95년말~'96년초 경수로 공사 착공	남북 공동위 가동 남북정상회담 개최
3단계	향후 3~5년후 경수로 핵심부품 인도	남북 경협 전면 개방 남북 상시 대화 채널 마련
4단계	2000년경 경수로 1기 완공	남북연합 진입 단계 구축
5단계	2003년경 경수로 2기 완공	남북연합 정착 및 통일 기틀 마련

· 정부는 약 10년 소요되는 경수로 지원 사업 추진이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외 개방 일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중장기 전략의 골격을 세우고 그 세부 계획을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음.

○ (展望) 北美會談의 타결로 북한의 核透明性은 일단락되었다고 하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실천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음.

(3) 南北對話

- (意義) 南北對話는 南北經協이 활성화되기 위한 선행조건임.
- (現況) 北韓의 南北韓 政黨 및 社會團體間의 대화 제의 공세에 정부는 南北間 高位級 會談 제의로 맞대응.
- (展望) 당분간 觀望 姿勢로 일관될 것이나 몇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년 하반기 이후 實務級 對話 雰囲気가 조성 가능.

- 南北對話는 南北經協이 활성화되기 위한 선행조건임.
 - 訪北 人士들의 신변 안전, 투자 및 과실 송금 보장, 조세 관련 분야에서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해 남북 정치 협정이 필요.
 - (現況) 금년 4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國際 體育·文化 祝典과 관련, 북한은 우리 정부를 배제한 민간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제스츄어를 보임.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한 고위 회담을 제의하므로써 맞대응하고 있음.
 - 政府案에는 남북한 이산가족의 축전 참여, 남북 언론인의 자유로운 상호 방문 취재 및 기업인의 판문점을 통한 왕래 등을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됨.

- (展望) 當분간 觀望 姿勢로 일관될 것이나 몇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년 下半年 이후 남북한 실무급 예비 접촉등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음.
 - 북한측은 당분간 남북대화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미·일 등 대서방 국가와의 경제·정치·외교적 위상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임.

남북대화 촉진 요인	남북대화 저해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간 합의로 남한의 협조가 요구됨 (경수로 건설 지원). - 김정일은 南北頂上會談의 재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제고하려고 할 수 있음. - 남북정상회담 재개는 김일성 유업의 완수라는 면이 있음. - 금년 6월의 총선의 호재용으로 여권에서 관심을 갖음. -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의 공식 권력 승계 지연 및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성 - '조문파동'으로 인한 남북간의 감정 대립 - 북한 군부내 강경파의 반대 - 북한의 親美反韓의 외교정책 - 북한의 대남정책: 국가보안법 철폐, 비전향 장기수 송환 및 남북한 군축을 위한 협상 등을 先 要求

(4) 周邊國家의 對韓半島 政策

- (北美 關係) 북핵 합의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간 교역이 확대될 것임.
- (北日 關係) 장기적으로 北日間의 관계 개선 및 정상화로 진행됨.
- (南北韓과 中國 關係)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관계와 남한과의 善隣友好關係를 당분간 동시에 추구할 것임.
- (外國企業의 對北韓 交易) 北美關係 및 南北經協의 진전에 따라 外國企業의 對北韓 進出은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1) 北美 關係

- 北美會談의 합의 일정에 따라 北美間 關係 改善.
 - 북한의 對美 關係 개선 조치 발표
 - 美國産 상품의 搬入 허용, 북한의 領空 및 港灣 開放.
 - 美國은 對北韓 規制의 부분 완화를 발표(1월 21일).
 - (통신 및 정보) 북미간 통신 연결에 관련된 자금거래, 언론사의 北韓內 支局 개설 및 미국 전화회사의 북한 진출 허용.
 - (금융거래) 북한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동결자산에 대한 봉쇄를 해제.
 - (무역) 북한 마그네사이트의 對美 輸出 허용 및 미국 은행을 통한 북한과 제3국과의 교역 허용.
 - (기타) 연락사무소, 경수로 건설 지원 등에 관한 경비 결제 허용
 - 금번 조치는 부분적인 규제 완화에 그쳤으나 北核 合意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가 확대될 것이고, 미국의 對北交易이 확대될 전망이다.
- 韓國型 輕水爐 選定 및 美國의 對北 進出에 있어서 先南北對話 원칙 등이 유지될 경우 北美關係의 개선은 남북한 관계 개선에 일조할 것임.

2) 北日 關係

- 南北韓과 周邊 4強間의 교차 승인의 마지막 측면인 北日間의 관계 개선 및 정상화가 예견됨.
 - 북한과 일본은 '91년 1월 수교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북핵문제로 '92

년 11월 이후 협상이 중단되어 왔음. 그러나 금번 북미 핵회담의 타결로 북일협상의 재개가 논의되고 있음.

- 現 日本 政界의 구심점 부재로 정계 개편 구도가 어느 정도 잡히기 이전에는 北日關係의 극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 단, 변수로써 일본 고베지역의 지진참사로 인한 북한의 慰勞 電文과 일본의 答信으로 北日間의 修交會談 재개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南北關係 개선이 북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따라서 북일관계의 개선이 있다 할지라도 남북관계는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있음.

- 北日修交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는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에서 탈피하게 해주며 또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북일간의 경제적 심화는 북한의 경제적 개방을 유도, 남북경협 및 통일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음.

3) 南北韓과 中國 關係

○ 중국은 '두개의 한국정책'으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진.

- 남한의 北方政策과 南北經協에 대한 적극성을 활용하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심화 관계를 이용.

○ 不統不亂(한반도의 통일도 혼란도 바라지 않는다)의 원칙하에 중국은 자국의 실리 도모를 위한 북한과의 血盟關係와 남한과의 善隣友好關係를 당분간 동시에 추구할 것임.

- 중국에 대한 남북한의 무역 의존도 심화와 남북한의 경쟁을 이용, 중국의 대한반도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 일본, 러시아에 대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것임.
- 남한의 일방적인 경협활성화 조치와 이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로 남북경협에 대한 公約數가 부재한 가운데 기업들 자기 책임하에서 추진되는 민간의 對北經協은 적어도 제3국을 통한 投資保障등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남북경협에 있어서 중국 및 沿邊 朝鮮族 企業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할 것임.

4) 外國企業의 對北韓 交易

○ 外國企業의 對北韓 進出은 南北經協을 촉진할 수도 있으나, 北韓의 南韓 배제가 노골화될 경우 代替的인 效果를 야기시킬 수 있음.

- 南北經協의 하나의 變수로 美國·日本·유럽의 國家들의 對北韓 進出을 꺾을 수 있는 바, 이는 南北경협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으나 北韓이 이들 國家와의 경협이 활발할 경우 체제 와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 企業에 對해서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체적인 效果도 상존되어 있음.

- 북미협력의 進전 정도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가 가장 큰 變수임.

○ 北美關係 및 南北經協의 進전에 따라 外國企業의 對北韓 進出은 점진적이 고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제한적인 對外開放과 열악한 투자 環境으로 서구기업의 北韓 進출은 中國의 개방 초기에 대부분 華僑資本만이 對中國 進출한 예를 보듯이 韓國기업의 進출 推移에 따라 또는 韓國 企業과의 협력을 통해 신중히 행할 것으로 예상됨.

○ 北韓과 周邊國家와의 交易 關係의 變化

- 北韓은 이전 舊蘇聯등 舊社會主義 國家와의 무역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이들 國家의 몰락으로 中國, 日本, 南韓 등과의 무역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음.

<표> 北韓의 주요 交易 對象國 점유율 (단위: %)

구분	88년	90년	92년	93년
한국	-	1.0	8.5	7.9 (200.6) ¹⁾
중국	1.3	7.6	27.8	35.2 (899.5)
일본	11.5	9.3	19.2	19.3 (493.8)
구소련	65.9	44.1	12.8	13.3 (339.9)
독일	1.4	1.8	5.6	4.2 (107.0)

주: 1) 北韓과의 交易액(수출+수입, 단위: 백만달러)

III. '95 南北經協 展望

(1) 南北交易 展望

- (南北交易) 당분간 남북경협은 본궤도에는 오르지 않아 현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2억 5천만 내지 3억 달러의 남북교역이 예상된다.
- (對北 委託加工業) 短期的으로 북한의 대외개방 부담이 적은 委託加工業은 활성화되어 5천만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對北 直接 投資) 長期的인 對北 直接投資는 南北當局간의 협의 및 대화를 통한 미비점 개선여하에 따라 開始될 전망이다.

○ 北韓의 對外開放 負擔이 적은 經協부터 活性化가 예상된다.

-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불투명하고 남북간에 直交易體制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의 外貨難과 輸出物資의 不足 등 교역상 장애로 당분간 남북경협은 본궤도에는 오르지 않을 것임.

· 특히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을 수행하지 않는 한, 북한의 生産力 停滯로 인해 南北交易이 현수준인 2억 3천만 달러를 크게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2억 5천만 달러 - 3억 달러).

· 기술자의 방북과 관련설비나 副資材의 適期 供給, 수출시장에의 접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확보,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투자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 다만 北美會談 타결 이후 정부의 핵-경협의 연계정책 철회로 短期的으로는 북한의 대외개방 부담이 적은 委託加工業 중심으로 활성화가 예상된다.

· 북한 특유의 정치·사회 체제와 자존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과 범위내의 南北經協이라야 실천 가능성이 있음

· 委託加工이 활기를 띠어 5천만 달러(반입승인기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교역이 밝아질 전망이나 대북 경수로 지원 건설의 진전 사항과 연계되어 확대될 것임.

- 長期的인 對北 直接投資는 南北當局간의 협의 및 대화를 통한 미비점 개선여하에 따라 開始될 전망이다.
- 당분간 對北投資의 타당성 조사 차원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기존에 추진되어 온 남포공단 합작사업이나 나진·선봉, 금강산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것임.
-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한 정부와의 공식창구를 통한 경협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對北投資를 위해 필요한 投資 保障, 清算計定, 紛爭解決 節次 등에 관한 남북 당국간 공식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政府의 對北 經協 政策 및 企業의 對北 進出 展望

- (政府의 對北 經協 政策) 實用主義에 입각, 委託加工 活性化등 成事 가능한 경험을 우선으로 단계적 南北經協 擴大 政策 추진.
- (企業의 對北 進出) 기업들의 訪北을 통한 對北投資 調査 作業 및 委託加工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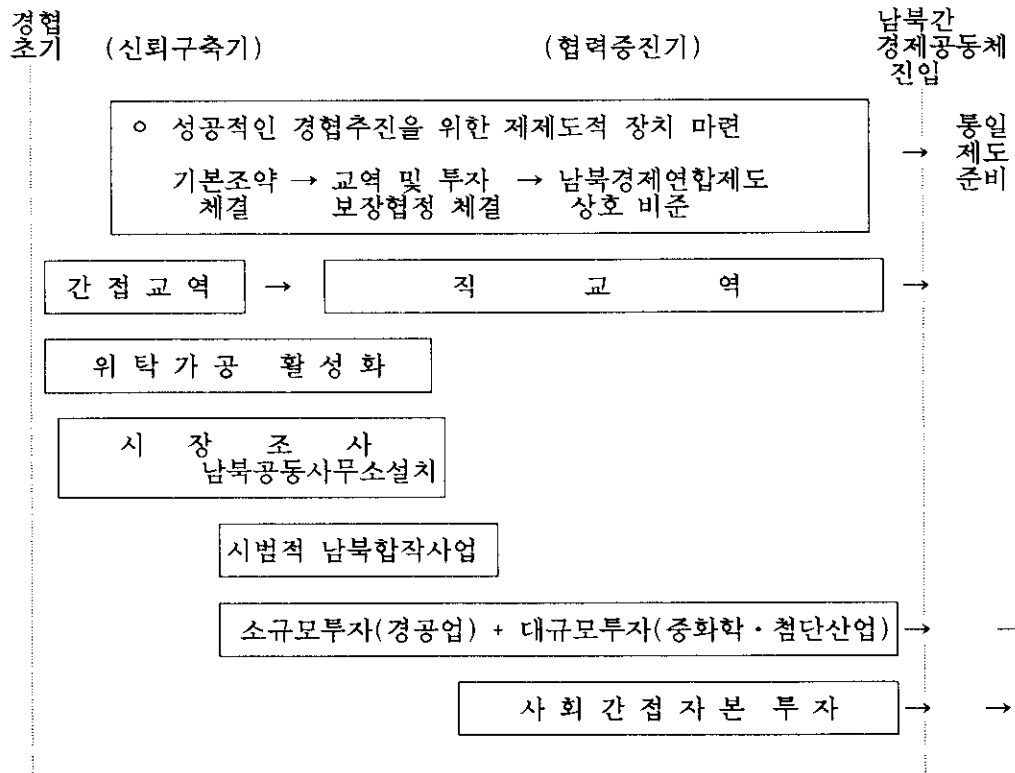
1) 政府의 對北 經協 政策

- 기업의 對北交流는 확대하나, 본격 경험은 향후 南北對話의 추이에 따라 상황적으로 대처함.
- 北核 활동 透明性 보장 및 輕水爐 建設의 중심적 역할 수행.
 - 對北 輕水爐 支援을 南北經協 사업의 모델로 선정, 段階的으로 추진하되 南北對話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일정기간까지 政府 管理 아래 추진함.
- 기업의 對北 進出에 따른 과당 경쟁 방지.
- (展望) 현실에 입각, 실질 교류를 도모하여 통일을 구체적으로 접근시킬 전망이다.
 - 당분간 기업인 방북을 허용하면서 직교역 및 위탁가공 확대, 그리고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유도하면서 대화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 UNDP가 추진하는 두만강 개발 계획 공동 참여와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

2) 企業의 對北韓 進出

- (爭點) 政府는 企業에게 對北進出에 있어서 과당경쟁 自제를 촉구, 企業은 政府에게 對北政策에 있어서 一관되고 新축적인 접근 政策을 요구.
- (展望) 企業과 政府의 협조체제하에서 우리 企業들의 訪北을 통한 대북투자 사전 조사 작업 及 委託加工交易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단계적 대북 경험 시나리오



(김 창 권)